

Ted Hildebrandt 박사, 책 II의 칭찬, 세션 2

3 등장 인물

© 2024 테드 힐데브란트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Dr. Ted Hildebrandt)입니다. 두 번째 세션, 시편의 세 인물, 왕, 시편 기자, 적입니다.

시편 제2권의 하나님 찬양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편의 세 가지 주요 인물, 특히 시편 제2권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될 것이고, 탄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시편 기자 자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위대한 왕의 찬양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 세명의 주인공이군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일을 잠시 살펴보고 복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제2권의 정경적 맥락을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시편이 오경처럼 모세의 토라와 일치하는 다섯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장부터 41장까지, 42장부터 72장까지가 우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자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이고, 4권은 90~106편, 107~150편은 시편의 끝 부분이자 150장입니다. 사실 시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아닙니다. 비록 150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시편의 많은 장들이 매우 작고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이 한 쌍으로 함께 나오는 것과 유사하게 시편 쌍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한 쌍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은 함께 오고 둘 다 애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조롱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시온이 제시된 다음 시편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 시온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의 서문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나오십니까? 책 시작 부분의 애도에서 끝 부분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시편 자체, 시편 전체의 초기 장, 3장, 4장, 5장, 13장 등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초기에는 애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할렐루야, 즉 주님을 찬양한다는 단어로 끝납니다.

시편을 쌍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사이의 상호텍스트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Jerry Wilson이라는 동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에 기본적으로 시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시편을 텍스트 간 읽기의 문을 여는 데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편을 다른 시편과 비교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각 시편을 개별적인 시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erry Wilson의 작업은 David Howard와 다른 많은 사람들, McCain과 McCann과 같은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 시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마스킬 에 관한 아주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 Maskils 가 끝난 직후 Miktam 섹션이 있습니다 .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Mikta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 그래서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시편들은 Miktams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일련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64부터 68까지는 찬송가이고, 56부터 60까지는 Miktams 입니다 . 그리고 시편 71편과 72편은 연약하고 연약한 다윗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열왕기상 1장과 비슷합니다.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연약하고 연약하고 늙어서 하나님께 그의 노년기에 그를 버리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힘. 성전 건축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익숙한 것 같나요? 성전 건축자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윗의 자손이 일으키리라.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전환과 다윗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시편 72편은 우리의 책을 끝내고 세 번째 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다윗 컬렉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책인 3장부터 41장까지에는 다윗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번째 다윗의 모음집이 있지만 그것이 책 전체가 아닙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은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를 기록합니다. 제목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72편을 썼습니다. 따라서 편집자들이 시편을 편집하는 동안 이곳에서는 더 많은 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은 다윗 시대부터 포로 시편이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편이 모여서 합쳐진 4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합쳐지면서 400년에 걸쳐 이 책들을 함께 편집하는 많은 편집자들에 의해 작업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Elohistc Psalter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로힘 시편은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로 제3권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것은 1권, 4권, 5권이 6대 1로 야훼(Yahweh) 또는 주님(Lord)이라는 이름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시편 42-83편에 이르면 엘로힘이 약 6 대 1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1권, 4권, 5권에서는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대체로 2권이지만, 3권에서는 약간 엘로힘이 6 대 1로 선호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편 14편과 53편을 보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들은 정확히 평행하고 거의 동일한 시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것은 14장에서는 야훼라고 말했지만 53장에서는 세 번이나 하나님, 엘로힘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이 시편을 함께 편집할 때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시편의 세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것은 왕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대부분 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5편에는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시편 72편에서는 인간 왕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이 될 것이고, 시편 72편은 왕으로서의 솔로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구약성서의 은유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와 함께 가르치는 다르코 박사는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요 은유는 아버지가 예수의 입에서 나와서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즉 우리 아버지라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왕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된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학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에서

벗어나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우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 위대한 왕이 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세 가지 주요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 시내 언약, 다윗 언약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왕에게서 나옵니다.

왕은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왕은 거대한 은유이고 그 은유는 바로 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제2권에서 왕의 개념과 그 은유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왕 다음에는 시편 기자나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탄원자는 누구입니까? 지원자란 무엇입니까? 간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간구자는 기본적으로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어쩌면 청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애도가 있을 것입니다. 애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탄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적이 있고 적이 개입 하며 그 적은 시편에 아주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과 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원수가 시편 기자를 음모하고, 조롱하고, 해를 끼치고, 삼키고, 올라미하고, 수치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시편 필자를 겨냥하여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구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은 시편 기자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원수는 나를 때리고 있으며 나를 파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왕의 역할은 구원하고, 구원하고, 구출하고,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왕이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를 구원하고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적과 싸워 패배시키고, 징벌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은 시편 기자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원수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편 기자가 희생과 찬양으로 응답할 시편 기자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출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 그를 구원하신 후의 응답은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찬양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시편 2권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할 형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왕, 왕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성한 왕은 은유입니다.

우리는 45장과 72장에서 인간 왕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다루지 않고 왕에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왕은 우리가 말했듯이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요 은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전체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 신은 거대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것은 이 슬라이드 대부분의 제목을 증명하는 몇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일련의 구절을 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일종의 목록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왕권 은유가 시편의 주요 내용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클릭하면서 전체 구절을 읽으면서 각 구절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4장 4절과 5절에 주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왕과 나의 하나님이 평행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 구절에는 세 인물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과 5절, 주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로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적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편 기자가 신성한 왕 대신에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을 짓밟습니다. 44장 8절에서 세 절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셀라.

우리는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오시며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리로다(셀라).

그러므로 이 왕은 구원의 행동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왕에 대한 이 개념, 왕은 시편 기자나 간구하는 자의 구원과 구출로 인해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7장 2절부터 3절까지 아래에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얻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신 여호와와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위대한 왕이 이 사람들의 편에 있고 그들이 적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7장에서 조금 아래로 보면 4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찬양하라

그분께 찬양의 시를 노래하여라. 그래서 이것은 시편 47편 6절부터 8편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주요 주제는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제 이 시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2권을 다 읽었지만 모두가 이 시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시편 23편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본질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고 시작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느니라.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나의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비유는 나를 쉼만한 물가의 푸른 초장에 누운 양처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의 끝 부분에는 왕의 군대에 대한 은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서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좋아요. 적들이 보입니다.

그는 내 앞에서 잔치를 준비한다. 그분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여기 왕족의 잔치가 있고 목자와 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미지 사이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돈 파울러 박사라는 박사 학위 과정에서 제 멘토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돈 파울러 박사는 목자 비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대 근동에서 발견한 것은 목자가 목자를 언급할 때 목자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자신들을 백성의 목자, 백성은 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을 다시 보면, 여호와와 나의 목자, 즉 왕이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쉼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가에 나를 눕히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왕의 군대가 내 앞에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목자의 은유를 통해 왕권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시편은 하나가 되고 두 이미지 사이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에 누이시도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십시오. 양으로서 그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면서 왕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권은유는 시편 23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인 시편의 이미지 사이의 이러한 단절을 해결합니다. 나는 파울리 박사가 시편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그 시편의 통일성, 응집력, 문학적 응집력을 보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주요 비유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적을 보호하고 물리치는 왕의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왕은 약한 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는 보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68편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구름을 타시는 자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

아버지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아는 고아입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거처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이 보좌에 계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를 도와주나요? 그는 아버지 없는 자들을 돕습니다. 그는 과부, 고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72장 4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72편에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왕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연약합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이 이를 이어받았고 슬로모(Slomo) 또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 보통왕, 인간왕의 역할이다. 그러나 신성한 왕권은 인간 왕의 은유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왕은 무엇을 하는가, 인간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압제자를 분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의 역할은 궁핍한 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솔로몬이나 슬로모가 시편 72편에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부르짖는 궁핍한 자, 도와줄 자가 없는 고난 받는 자들을 구원할 것임이로다. 그분은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억압과 폭력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 왕이 궁핍한 사람들을 찾고 옹호하며, 그들을 구출하고, 구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십시오. 자, 이것의 일부는 적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에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 시편 70편 1절과 2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파멸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따라서 역할 중 하나는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적, 원수, 우리는 적을 물리 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적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마스를 행한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그들을 위한 승리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왕은 보호하고 패배시킵니다. 이제 나는 구원, 정의, 구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요청은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찬양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4절과 18절에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내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깊은 물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다가오는 혼돈의 물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이 깊은 물에서 건져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달해 주세요.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편 69편과 예레미야서 사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렁에 빠지면서 며칠 동안 정화조나 저수조에 갇혀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레미야서와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후대의 편집자 중 한 사람으로서 시편에서 예레미야의 손길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편 68편을 보면, 시편 69편을 보면, 68편과 68장 16절, 그리고 19편에서 20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험준한 산들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을 어찌하여 시기하여 바라보나이까 통치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이 되어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거하실 산에서 다스리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왕으로 거처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주요 직업 중 하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에게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68편 24~26절을 몇 절 더 내려가면 여러분의 행렬이 보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68편에는 불과 몇 절 뒤, 마치 다섯 절 뒤인 것처럼 주님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걸어가는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의 행렬입니다. 그곳에서 그룹화, 나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의 행렬이 성소로 향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올라가는 시편과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여기 나의 제사장이 아닌 나의 왕 이신 하나님, 신권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성소의 행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그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가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탬버린을 연주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행렬을 보게 되고 그것은 가수에서 음악가, 탬버린을 연주하는 처녀로 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왕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집단적으로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악을 부르고, 가수들이 있고, 악사들이 있고, 탬버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4편 6절과 7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찬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 왕이 그들을 구원하고 왕을 찬양하는 것 사이의 연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6절과 7절에 내가 주께 자원제사를 드리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분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를 칭찬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내 눈은 내 원수들의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칭찬이라는 개념의 배경의 일부로 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은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구원받은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다음은 시온의 왕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왕이 시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에서 우주적인 통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전조입니다. 여러분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장래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산이나 저 산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시온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혀 그것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예수님처럼 시온에서 온 세상으로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왕의 처소는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이것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보편적인 규칙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의 수도, 그의 왕, 그의 도시.

그 당시에는 도시가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시편 4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보내소서. 그들이 나를 안내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곳에 이 특별한 산, 이 거룩한 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사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계십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온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특별한 곳,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3편 3절은 46절, 4절과 5절, 그리고 11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편 46편, 5편, 4편, 5편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성은 자주 이런 식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이라 불립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은 예루살렘, 시온이다. 하나님은 그녀 안에 계십니다. 그녀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벽에 그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46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다. 흥미로운. 그리고 나서 (셀라) 이런 종류의 명상적인 멈춤이 있습니다.

시편 48편은 여기로 내려가서 48편을 보세요. 다시 시온은 48편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간다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동안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벽이 Suleiman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훨씬 나중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도성 시온은 시편 48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에서 시온과 큰 왕의 성이 언급된 구절을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야?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것은 그 숭고함이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이니라. 사 폰산 의 최고봉과 같이 시온산은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지 아시나요? 매우 흥미로운.

다시 오시는 왕의 비유, 우리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하나님은 그 성채에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요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항목이 저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시편 51편을 시편에 아주 잘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 그들은 시편 51편이 다윗이 죄를 지은 후 밋세바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편입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밋세바와 함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회하는 시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점은 시편 51편이 시편 48편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끝에서 다윗은 회개하는 역할에서 뛰어내립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기뻐하심으로 시온을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밧세바여, 다윗과 그의 죄와 인구 조사와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라. 시온을 번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

약간 느헤미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 그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을 쌓은 것처럼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회의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시온을 번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대한 초점은 하나님의 성, 시온성에 있습니다.

시편 53장 6절로 내려가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시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도 기뻐하리로다.

이제 전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편 48편, 51편, 시편 50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46편과 47편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 그분의 거룩한 산, 그분의 성소가 거하는 곳, 백성이 올라가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행렬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올라갑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건, 잠깐만요. 그런데 이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온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는 온 땅에 퍼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예루살렘이요. 하지만 예루살렘 너머에는 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과 11절이 Matt Hoffland의 아름다운 노래로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Get Lost in Jerusalem)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올리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눈 속에서 버튼을 눌러 노래를 재생하면 Matt Hoffland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편을 부를 것입니다. 시편 57편 5절과 11절입니다. 이것은 후렴구입니다. 시편에는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후렴입니다. 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6절 후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였느니라.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아지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이번에도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시편 72편으로 내려가면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이 2권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책, 72장,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권이 끝나고 3권이 73으로 시작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느니라.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중 아멘을 할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세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중 아멘이 여러분에게 '와, 이것이 책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권은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그리고 아멘.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에서 시작되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왕의 통치입니다. 이제 왕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왕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왕은 개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시편 48편에서 우리는 48절 9절과 10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올리겠습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48장, 9장,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성전 안에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목상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Nelson Gluck에서 전체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단어인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가끔 나는 그것을 완고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즉 변함없는 사랑의 일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헤세드와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목상한다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찬양도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에는 제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덱은 의로움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백성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DOJ가 이러한 모든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와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의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는 왕이고 그의 역할입니다. 시편 50편 6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세덱, 곧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제 판사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비유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 솔로몬의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지 어린 핑크 꼬마일 뿐입니다.

나는 내 사람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왕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나가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군사적 승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두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정의의 승리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뒤집어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아기가 그것을 물려받을지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칼을 주라고 합니다.

나는 아기를 둘로 나눌 것이다. 솔로몬은 그러자 어머니는 물론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어머니가 자신의 정의와 미스팻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냅니다.

그러므로 왕의 역할 중 하나는 대법원과 같이 재판관, 공정한 재판관, 공의로 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왕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72장 1절과 2절에서 미스팻에 관해 말하면서, 왕에게 주의 정의를 주소서,

미스밋이여, 오 하나님이여,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주의 세덱을 주소서.

그래서 당신은 정의를 뜻하는 zedek 과 정의를 뜻하는 Mishpat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을 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고난 받는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리이다. 즉, 이스라엘에서는 돈과 정의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이 왕 앞에 나아와서 원한을 얻었으니 이는 왕이 공의로 재판할 것임이니라 그는 공의로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심히 쫓는 자들 곧 대적(셀라)을 꾸짖어 나를 구원하신다 하였느니라. 신은 그의 무엇을 보내나요?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은 다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완고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십니다. emet , hesed ve 에멧 .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Emet은 진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진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헤세드 5절 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 에멧 .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법사이자 천재인 헛트 박사는 헤세드와 에메트를 연결하는데 , 이는 구약성서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글썬요, 여기가 강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왕에 대한 비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는 그들을 배달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 정의, 헤세드 사랑, 진실로 알려져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은유, 이와 같은 큰 은유, 스피노프 은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이 왕권 은유에서 나오고 함께 나오는 다른 은유의 전체 배열 또는 연결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제가 왕권 은유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왕 은유에 대한 일종의 맥락과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은유로 바뀌고 생성되는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큰 은유가 있고 그것은 신을 언급하는 다른 은유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시편 62편의 2절과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바위는 피난처이자 안전한 곳이다. 바위 뒤에 숨을 수 있는 곳.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부터 6절과 7절까지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제입니다. 그는 2절에서 그것을 말했고, 6절까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그 반석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라. 헤롯이 마사다 바위를 찾으러 갔던 마사다가 생각나서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래 구절에서 바위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입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은 바위라고 불리며 왕권이라는 은유, 즉 보호라는 개념을 파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막는 견고한 망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을 잡으면 강한 탑은 적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중에 시편 71편 1절에서 피난처라는 개념을 아래로 내리면, 오 주님, 내가 당신께 피신하였습니다. 제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왕이 구출하고 그의 의로 구출하는 이 구출과 구원의 개념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것은 2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는 요새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시편 59:9, 미안해요, 59:9, 그 다음 16-17, 시편 59:9, 그 다음 16, 17입니다. ,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구절. 당신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불안과 삶,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로부터 피난처,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는 나의 요새시요 환난 중에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은 그분이 요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 들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고통받는 자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는 왕의 역할에 대한 파생적 은유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는 강력한 타워입니다.

그는 피난처입니다. 그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일과 같은 파생물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주제를 전환하겠습니다. 그 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때 왕은 시온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적들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위입니다. 그는 타워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져서 시편 기자를 붙잡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나 탄원하는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궁핍한 자로 올 것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청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청자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AW Tozer가 The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작은 책인 AW Tozer, The Pursuit of God. 책 앞면에는 시냇가에 있는 사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권은 이렇게 열립니다. 2권이 열립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것의 시작 부분에 오면 많은 책에는 기본적으로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작과 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중간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과 끝은 이 시작, 중간, 끝 구조, 일종의 선형 구조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2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나요? 같은 시편에 나오는 조롱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나요? 적의 조롱에 비추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미지. 그리고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42장에서 이 오프닝에는 물을 위한 사슴 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당신을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매우 흥미 롭다.

시편 63편 1절은 중간에 있으며 시편 63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익숙하게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당신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어 건조하고 곤비한 땅에서 내 몸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은 사막 기후에 있는 이 존재와 누군가가 정말 깊은 갈증을 알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그런 식으로 열립니다. 시편 63편은 책 중간에 바로 죽었습니다.

봄, 당신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구절에서 우리가 언급한 곳은 적의 조롱과 조롱에 사로잡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2편 3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함으로써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 이미지를 기억하시나요? 셀라.

그러면 시편 46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의 이 아름다운 후렴구는 7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니, 셀라, 목상 멈춤.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의 갈증과 연결됩니다.

앞서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 시온 모티브와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편 47, 48편, 특히 48편, 50편, 51편과 시온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움직임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시편의 다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요새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기자가 말한 몇 가지 감정을 살펴보고 싶고, 시편 기자가 적과 맞서면서 느꼈던 일련의 감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의 반응은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0절에는 “나의 대적들이 종일토록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이미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헤르몬산 아래 단 지역 메론 물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높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은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자 시편 기자는 42:5, 11, 43에서 응답합니다. 이것은 세 번 반복되는데, 이 후렴은 시편 42:5, 5, 시편 42:11, 11, 그리고 시편 43:5, 5가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시편 기자는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 낙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그렇고, 흥미로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어찌하여 내 영혼을 낙심하게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영혼의 낙담한

기분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를 감동시켜, 나는 아직 그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바라라"고 말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기억하고 돌아가라. 내가 앞으로도 그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는 시편, 즉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계속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44를 치고 여기서 4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낮추셨도다 하였느니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해지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는 내가 당신께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44편 24절. 44편은 공동 애도입니다. 시편 42편과 3편은 개인적인 애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의 다음 시편은 우리, 우리, 우리와 같은 존재에 대한 공동 애도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래서 다시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을 숨기나요? 즉,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비참함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아래 54절은 55절입니다. 실제로는 55:4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5절에서 공포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떨림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쳐서 자칼의 소굴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캄캄한 흑암으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사물의 다른 측면을 얻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는 우리가 진토에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죽음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44:25에서 그는 우리가 흙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때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서 나에게 충격을 준 것 중 하나는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내가 배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점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이 나를 모욕하면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적이 나에게 맞서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아니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동반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신 당신이었는데,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와 함께 걸으며 달콤한 교제를 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적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적이 그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원수는 나를 해칠 수 없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지금 함께 올라가 송배하던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물을 매우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 원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느낌, 버림받은 느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서도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자 그게 시편 기자의 심정인데, 시편 기자가 꼭 거기 머물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은 신청인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부재, 친구의 배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반대면을 택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 대해 코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는 인생을 코딩하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을 행복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황폐함, 실망, 배신, 거절, 버림받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느꼈지만 다시 희망을 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 5절, 11절, 43장 5절이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희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 하는가? 그는 이 상태를 인정한다. 그는 그것을 걸치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반성하고 사물을 되돌아보며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영혼을 쏟아 붓는 가운데, 축제의 군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지르며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목상합니다. 거기 아름다운 통로.

이제 기뻐하라 시편 43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 번 그 존재에 주목하세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적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신 하나님께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은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을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그것은 마치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 버림받음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소망으로 일어나며, 이 소망은 그를 성전과 성소, 시온에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시편 기자이고, 지금은 시편 기자와 원수가 있는 곳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시편 기자와 대적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 그리고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적을 살펴보고 모두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에게서 궁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적이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용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적은 무엇을 할까요? 그는 그를 조롱합니다. 그는 42장 10절과 43절에서 그를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질문으로 그를 조롱합니다.

적이 조롱합니다. 원수는 기본적으로 44절 11절과 22절에서 말합니다. 원수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양처럼 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맵소사, 그들이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 줘. 그들은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양처럼요.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편 44편에서 우리는 다시 부끄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애가의 시편입니다. 사실 42는 개인의 한탄이다.

우리 와 함께 애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원수는 그들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내 얼굴은 수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명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수치심과 명예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원수가 자기를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적들, 오만한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54편 3절에 그가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9년에는 이 책이 예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 집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시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할 때에도 조롱을 참아야 합니다.

내가 굶은 벼룩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즉, 내가 슬퍼할 때 삼베를 걸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조롱합니다. 문 밖에 앉아 있는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술취한 자들의 노래이다. 그런 다음 13절부터 22절까지 몇 절만 내려가면 이것이 시편 69편 13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은총의 때에, 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구원.

나를 수렁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내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깊은 물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리고 깊은 수렁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막지 못하게 하소서. 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비와 사랑의 선하심으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향하십시오. 주의 종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곤란에 빠졌으니 속히 대답하여 주십시오.

가까이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 원수들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멸시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내 모든 원수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경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동정심을 구하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안을 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을 다시 읽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동정심을 찾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위안을 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담즙을 넣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식초를 줍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들은 내 음식에 담즙을 넣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초를 넣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마름은 우리가 42편과 시편 63편에서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대신 음식에 쓸개와 목마름에 식초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아주 흡사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들 앞에 놓인 상이 올무가 되고 보응과 댓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욕적인 일과 그 사람의 반응을 막 끝내고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 당신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 모두 일어나고 있으며, 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그것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에서 적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계속 등장하는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동하면서 그들은 묘사되고 적 자체는 이러한

이미지나 은유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들에 대한 은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요새, 피난처, 왕으로 묘사됩니다. 궁극적으로 적들은 게걸스러운 짐승과 사자로 묘사됩니다. 시편 57:4에는 내가 사자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 사이에 누웠으니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칼 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이로다. 6절은 같은 시편 58편, 미안합니다. 58절 6절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부러뜨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자의 송곳니를 꺾으소서 사자는 원수니이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과 4절에는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릇된 길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제멋대로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게걸스러운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사자들 앞에서 시편 기자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뱀의 독과 같은 독, 코브라와 같은 독, 귀를 막은 코브라의 독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물고 죽이는 코브라.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마지막 이미지는 배회하는 개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세 가지 주요 이미지, 즉 사자, 독사, 배회하는 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문화권의 개들은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사람들은 개를 친구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한 문화권에서 개는 야생개이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저녁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들은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도시를 배회합니다. 시편 59장 6절과 14절. 이제 원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빨리 치고 싶습니다.

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신뢰합니다.

악인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편 50편에는 원수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4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은 악인과 적에 대한 좋은 요약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율법을 암송하며 내 언약을 입술에 두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어떤가요? 당신은 내 지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네 뒤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을 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동조합니다. 너는 간음하는 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입으로 악을 행하며 혀를 이용하여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혀의 기만성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네 형제를 혈똥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는 중상적인 거짓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적과 간음하는 자들과 합세합니다. 그들은 중상모략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자랑하며 여기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시편 50편 16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악을 행할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너 용사야, 네가 악을 자랑하고 있다.

왜 하루종일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당신. 네 혀는 멸망을 꾀한다. 마치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자르는 면도칼과 같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당신은 악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을 뒤집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적군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산성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큰 재물을 의지하고 남을 멸망시키며 강건해진 자가 있느니라.

원수는 거짓을 행하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남을 멸망시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적들의 자질입니다. 그들은 파괴하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파괴함으로써 강해진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과 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편에 나오는 나쁜 소년들의 유형입니다. 이제 그들이 취하는 행동,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것을 겪어볼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빵처럼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행동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가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나열합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하는 큰 일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시편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올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칼과 화살 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 맞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을 가두기 위해 그물을 펼쳤습니다. 올가미를 설치한다는 생각은 새를 올가미로 잡거나 동물을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와 의인의 밭을 밧에 걸리게 하려고 그물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 악행자, 원수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 가지 복합물입니다. 악인, 악행자 및 적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이며 그들은 불명예 속에 함께 모여 있으며, 의인에 대한 수치는 그들이 의인에게 던지고, 불명예, 수치심, 불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4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에 대해 아름답습니다. 시편 69편 7~12절, 19~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들의 파괴를 보여주는 훌륭한 구절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본 것은 대체로 시편에 세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비유, 신과 인간, 인간 왕이 45편과 시편 72편에 나오는데, 신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 왕의 성, 그런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시편 기자나 탄원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당신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적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도움이 필요하고 시편 기자는 기본적으로 애도하고 탄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위해 왕으로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공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적과 싸우고, 패배시키고, 처벌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제 전해진 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징적인 맥락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왕께서 찬양하겠다는 서원을 받으신 것은 시편 기자가 원수로부터 구출된 상황에서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찬양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시편 기자는 그들을 위해 시온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반복하면서 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66장 16절을 읽고 싶습니다. 시편 66편 16, 16, 16,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였느니라.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자.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자. 그것이 칭찬의 기본이다.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움직이게 하소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찬양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시편 66편 5절과 6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하심과 출애굽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찬양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공식적으로 찬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 자신도 기본적으로 1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근거로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십니다. 이 글을 읽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사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우리 등에 짐을 지우셨습니다. 당신은 남자들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타게 놔두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고 나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내 입술이 약속하였으니 내 입이 환난 중에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런 종류의 것들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성한 왕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우리 자신의 구원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이집트 탈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일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번에는 애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제단 2권에서 애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초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애도와 찬양에 관한 세 번째 발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제2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Dr. Ted Hildebrandt입니다. 두 번째 세션입니다. 시편의 세 인물, 왕, 시편 기자, 원수입니다.